

한국의 구법승

13. 조계종 종조 도의 스님

# 인고의 세월 넘어서 핀 '선불교'의 꽃



조계종은 매년 도의국사 차례재를 열고 있다.

도의 스님은 중국 6조 혜능 선사의 남문 선(南頓禪)을 신라에 최초로 전래한 스님으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고 있다. 도의 스님의 생몰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라하대가 시작되는 제37대 선덕왕(780-784)대에서 제41대 헌덕왕(809-826) 사이에 활약했다.

〈조당집〉(祖堂集) 권7 〈설악산진전사원적선사전〉(雪嶽山陳田寺元寂禪師傳)에 따르면 도의 스님의 성은 왕씨(王氏)로 법호는 명적(明寂), 시호는 원적(元寂)이다. 북한군(北漢郡 또는 北漢山)에서 태어났다. 전기에 의하면 그 부친의 꿈에 흰 무지개가 집안에 드리우고, 모친의 꿈에는 고승을 친견하는 태몽을 꾸고 어머니가 임신한 지 39개월 만에 낳았다고 한다.

도의 스님은 선덕왕 5년인 784년 당나라 오대산에서 공중으로부터 종소리를 듣는 등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 광부(廣府) 보단사(寶壇寺)에서 비구계를 받고 조계(曹溪)에 가서 육조(六祖)의 영당(靈堂)에 참배했는데 이때 조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한다.

다시 강서(江西)에 있는 홍주 개원사(開元寺)에서 서당지장(西堂智藏) 스님에게 법을 물어 모든 의혹을 풀고 지장의 법맥을 이어받았다.

서당 지장 스님은 도의 스님을 보고 말하기를 '마치 돌틈(石間)의 아름다운(美玉)을 취하고, 조계 가운데 진주를 쏙는 것과 같다. 진실로 가히 법을 전하는 데는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리오' (조당집)라고 했다.

도의 스님라는 이름은 이 때 지어졌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도의 스님을 지장 스님의 제자 4명 중 계림도의선사(鷄林道義禪師)로 표기하고 있다.



석남사 조사전에 모셔진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진영.

도의 스님은 이어 백장(百丈) 회해(懷海) 선사를 찾아가 법요(法要)를 강의받았는데, 회해 선사는 "강서의 선맥(禪脈)이 모두 동국승(東國僧)에게 속하게 되었구나" (百丈曰西禪脈總屬東國之僧歟)고 칭찬하였다. 스님은 서당·백장 이대의 선법을 받은 후 당나라로 향하지 37년 만인 헌덕왕 13년(827년)에 귀국해 한국 선불교의 씨를 뿌린다.

### 한국 선불교의 씨앗을 남겨

도의 스님은 귀국해 선법을 펼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교학(敎學)만을 숭상하고 선수행을 이해하지 못했다.

도의 스님의 선법은 육조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서당지장-설악도의로 이어지는 정통 남종선의 활발한 면모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화엄, 계율 등의 교학적인 불교가 유행했다. 이런 가운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주장하는 파격적이고 자

### 784년 문수보살 감응 받아 서당지장 스님 가르침 사사 백상회해 스님 선법도 이어 827년 37년만에 귀국길 올라

유로운 선법은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도의 스님은 아직 선법을 펼칠 때가 아님을 깨닫고 달마가 승산에서 9년간 침묵 속에서 기다렸듯이,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서 40년 동안 수행을 했다.

도의 스님이 가진 선사상의 개화는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는 가운데 한 세대, 그 다음 세대의 기다림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도의 스님이 지피려했던 선불교는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긴 침묵 속에 인고의 시간을



울산 석남사에 있는 도의국사 부도탑. 가지산 석남사는 도의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이다.

### 불립문자 등은 당시 파격 설악산에서 40년간 수행 보조체징 스님에 이르러 꽃피 가지산문과 선불교로 이어져

보냈다.

도의 스님의 법은 제자 염거(廉居) 스님에게 전해졌지만 염거 스님 또한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음을 알고 긴 침묵 속에 수행에 전념하다가 제자 보조 체징(普照 體徵) 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하였다.

그 뒤 보조 체징 스님이 법을 받아 가지산에 보림사(寶林寺)를 짓고 종풍을 크게 펼쳐 일파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때 도의 선사를 제1세, 염거선사를 제2세, 자신을 제3세라고 하여 도의 스님을 가지산파의

개산조로 삼았다. 이로 인해 그는 신라에 처음 선을 전한 가지산문의 개조로 일컬어진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심인을 전하다

고려 말 진정(眞淨)국사 천축(天竺) 스님이 지은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는 도의 스님이 지원 승통(智遠僧統) 스님에게 한 법문이 수록돼 있다.

이 법문에서 도의 스님은 법계설(法界說)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심인법(心印法)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도의 스님은 교종인 화엄의 사법계설(四法界說)을 들으면 주먹을 끝이 들면서 이것이 무슨 법이나 묻고, 또 일대장경은 무엇을 밝히는 것이냐 물으면 또한 주먹을 들어서 대답하는 등 문자를 세우지 않고 심인(心印)을 전한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신라 하대에는 신라 신분체계에 불만을 품은 육두품 이하의 많은 인재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당시 새로



지난 2008년 중국에 세워진 도의국사 입당구법비

운 사상의 흐름인 선종불교를 배웠다. 이들이 귀국하자 당시 신라의 중심이었던 불교에도 큰 변화가 발생한다. 선불교의 도입은 당시 유행한 유가 내지 화엄교단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시대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선불교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당시 분위기는 장흥 보림사의 '보조체징 선사창성탑비문' 에도 잘 나타나 있다.

'처음 도의대사가 서당에게서 심인을 전해 받고 뒷날 우리나라에 돌아와 선의 이치를 설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경의 가르침과 관법(觀法)을 익혀 정신을 보존하는 교종의 법만 숭상하여 무위임운(無爲任運)의 가르침인 선종에 모이지 아니하고 허망하고 황탄하다고 여겨 높이 받들거나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 마치 달마가 양무제를 낳지만 뜻이 통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이로 말미암아 (도의스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산림에 은거하여 염거(廉居) 선사에게 선법을 전하였다. 염거선사는 설악산 석성사에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여니 우리 체징(體徵)선사가 거기에 가서 그를 섬겼다.'

도의 스님은 기존의 교종불교가 의례화·형식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선불교가 수용되는 전환기에 사상적 선구자로서 인고의 세월을 살았다. 스님의 부도는 강원도 양양 진전사와 울산 석남사에 있다. 탑비문은 당시 선법이 허망하고 황탄하다 하여 신앙하지 않았던 모습을 전하고 있지만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선불교의 물결은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그 후 스님의 선사상과 수행법은 한국불교의 정통이 되면서 수많은 수행자의 눈을 뜨게 하고 깨달음의 불빛이 되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처님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 입종 안내 ◆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영원본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접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청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해외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종 후 발급증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메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고 문 석홍섭	승정원장 석원정	총회장 석덕오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장 석범경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부 의 장 석철오			
총무원	호계원	문화원	감사원	포교원	기획원
총무원장 석해오	부 원 장 석옥암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장 석철산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장 석해광
총무부장 석운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범담	사회부장 석해주	부 원 장 석범호	부 원 장 석범승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범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총본산 인터넷주소 : [www.dwbk.net](http://www.dwbk.net)

###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법패 교육생모집”

- 범음(호소리, 길소리) 법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쇠,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 잘 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문 2년 \_ 시왕가래, 예수재, 영산재, 수록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 등 법패의 모든 것)
- 개강일 : 2014년 3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